

# 사랑의 샘

2006



통권120호

Merry Christmas



사회복지법인 이천한나원

한나요양원·한나그린힐

홈페이지 : <http://hannawon.or.kr> 이메일 : [echnw@hanmail.net](mailto:echnw@hanmail.net)

#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시고 있습니다

♥새롭고 즐겁고 편안한 노년생활을 하세요♥



- ※주위환경 : 기독교 박물관, 농원과 초원, 산책로, 이천 설봉공원
- ※시설규모 : 연건평-567평, 5층 건물, 정원 50명
- ※대상자 : 중산층이하, 65세이상 남·녀 어르신
- ※입주비용 : 월 생활비 437,000원, 보증금 5,244,000원  
(특별 간병료는 30%까지 추가) - 2006년 기준
- ※입주자격과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나그린힐 (실비 노인요양시설)

467-852)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74-8

☎ 031-631-1911~2 Fax. 631-1922

홈페이지 : <http://hannawon.or.kr> 이메일 : [igh2005@hanmail.net](mailto:igh2005@hanmail.net)

# 2006년 사랑의 샘(겨울호)

창간 1986. 2. 1



표지설명 : 한 해를 보내면서 한나요양원과 그린힐 직원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福 많이 받으세요.

통 권 : 120호  
 발행인 : 한영제  
 편집인 : 박양조  
 발행일 : 2006. 12. 20

한나요양원	한나그린힐
주 소 : 467-85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74-4	467-85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74-8
전 화 : 031) 632-1357	031) 631-1911
팩 스 : 031) 633-0850	031) 631-1922
이메일 : echnw@hanmail.net	igh2005@hanmail.net
홈페이지 : <a href="http://hannawon.or.kr">http://hannawon.or.kr</a>	

사진위원 : 김성보  
 편집기자 : 오은숙, 김영현, 박은영, 박영옥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마 1:21)

2	<b>대표이사 인터뷰</b> 어르신들을 보살피며
4	<b>요양원소식</b> 한나요양원 이련일 저런일
6	<b>그린힐소식</b> 한나그린힐 이모 저모
8	<b>방문감사예배 설교</b> 안나의 기도
10	<b>좋은 이웃</b>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12	<b>얼린정보</b> 인생의 명언
13	<b>행사 이벤트</b> 풍성한 추수에 감사하며 함께한 경로잔치
14	<b>도움의 손길</b> 사랑과 나눔, 정성과 보람
16	<b>봉사의 향기</b> 사랑으로 담은 김장

## 어르신들을 보살피며



대표이사 한영제 장로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현재 건강은 어떠신지요?

5년 전 한나원 입구에 한국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세우고 이곳으로 이사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 정도 서울을 다녀오고 있고 한쪽 다리가 불편하지만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건강은 좋은 편이어서 박물관의 관장으로 웬만한 활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한나요양원이 20주년을 넘기면서 자리를 잡았고 그동안 출판을 하면서 기독교 자료를 많이 구해서 기독교 박물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박물관 전시준비와 관람자 접대 등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한나요양원 원장과의 수시로 접촉하여 시설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입주하셨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참석하는것 등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나원이 시설개원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시다면?

대지 구하고 설립하던 얘기부터하면 끝이 없는데 벌써 21주년이 되었다고 하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서 85년 이전 한나원을 준공하여 처음에는 무료양로시설로 시작하여, 94년에는 무료요양시설을 증축하였고, 2005년 12월에는 실비시설인 그린힐을 개원 하였습니다. 그동안 관계하신 임원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나요양원이 시설 평가도 잘 받아서 노인복지시설에서 한 몫을 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나원에 대해서 어떤 발전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부지가 컸으면 좀 더 큰 시설을 생각할 수 있었지만 1년 전 755평 부지에 실비시설인 그린힐을 건립 했습니다.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 현재 국가적으로도 많은 시설이 필요하며, 특히 중간층 사

람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린힐을 증축하여 제 모습을 갖추고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여 중풍과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모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한나요양원과 그린힐 어르신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나원 옆에서 살면서 박물관 손님을 모시고 가거나 예배드리러 한나원 예배실에 가고 특히 매주 주일예배를 드리고 침대에 누워계시는 어르신들을 뵙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 건강하신 분들은 복도에서 인사를 반갑게 나누게 되고, 불편하신 분들은 방으로 찾아와서 위로하며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입주 당시에는 건강 하셔서 1층에 계시며 여러 가지로 활동하셨는데 몸이 불편해지면서 2층으로 올라가 주로 방에 계시고 더욱 건강이 좋지 못해 지시면 3층 침대에 가셔서 많은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한나원은 천국 가는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 **직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은 나의 친부모를 모시는 심정으로 어르신들을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잘 모셔야 할 것으로 늘 생각합니다.

▶ **지난 한 해동안도 한나원을 후원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자리를 빌어 한나원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후원자, 봉사자, 여러 기관,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진정 사랑으로 서로 돕고 베풀어야 나라가 풍요롭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적인 부요 이상으로 자원봉사자와 후원이 필수라고 합니다.

▶ **이제 한해를 보내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한나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기원합니다.

▶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로님과 사모님도 계속 건강하셔서, 한나원 일과 박물관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한나요양원 이런일 ~ 저런일 ~



## “경로잔치를 열었어요”

올해로 제21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장기자랑과 풍성한 식사, 그리고 선물까지...



## “나들이는 언제나 즐거워요”

지난가을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여주의 영릉을 거쳐 황포돛배를 타고 금모래 은모래까지 다녀왔고, 건강하신 분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남이섬으로 멋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축하드려요”

제 10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 및 축하공연을 설봉공원에서 관람했습니다. 특히 직원들 중 신연옥, 이옥화 선생님 두 분이 '의회의장상'을 수여받아서 더욱 뜻 깊었습니다. 축하드려요...





### “올해도 한자리에 모였어요”

매년 친선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합니다. 대월면 초지리의 4개팀과 한나원, 그린힐팀까지 모두 6팀이 모여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를 치렀는데 승부에 관계없이 즐거운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 “유니크 펠 닥터스 의료봉사”

아주대학병원 의료팀이 어르신들을 진료해 주셨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은 많지만 웃으며 친절하게 진료해 주시기에 마음은 벌써 다 나은 것만 같습니다. 감사드려요~~



### “명성산의 갈대밭에 가보셨어요?”

직원 상조회에서 두팀으로 나누어 경기도 포천에 있는 명성산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광야처럼 넓은 들판에 펼쳐져 있는 갈대밭에서 사진도 찍고 포천 이동갈비로 회식도 하고... 정말 즐거웠어요~~

입주자 현황 (11월말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계	입주자	퇴소자
	13명	66명	79명	7명	4명

직원 현황 (11월말 현재)	원장	총무	생활복지사	촉탁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계
	1	1	1	1	3	1	1	16	2	1	28

# 한나그린힐의 이오 저오



### “흥겨운 추석 한마당”

민족 대명절 추석 한마당이 그린힐에서도 펼쳐졌어요. 어르신들과 팀을 나누어 윷놀이도 하고 송편 빚기 대회도 열었답니다. 모두 함께 크고 작은 다양한 모양의 송편을 빚은 후 찜내는 맛이란 정말 끝내 줬어요.^0^

### 내 바느질 솜씨 어때요??(퀵트교실)

어르신들과 함께 모자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예전의 솜씨를 마음껏 뽐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십니다. 어때요?  
내가 만든 모자 근사하지요~~~??



### 어르신의 건강을 위하여!!(한방진료)

매주 금요일이면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진료 시간이 있습니다. 뿌연 연기속에 뜬도 뜨고 침도 맞으시는 진지한 모습이 어느새 건강해지신 듯 좋아 보이시네요...



### 배움의열기가후끈~~~(한글교실)

“내 평생에 성경책 한번 제대로 읽어 보는 게 소원이야” 하시며 열심히 한글을 배우시는 우리 어르신의 모습 속엔 누구 못지않은 배움의 열기가 뜨겁답니다.





### 더불어 풍성한 경로잔치

지난 11월 가을의 풍성함 속에 그린힐 에서는 지역 어르신들과 여러 귀빈들을 모시고 제 21회 경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사랑으로 더욱 즐겁고 흥겨운 시간이었습니다.



### 그린힐 생일날~~♡

지난 12월 1일 그린힐이 개원한지 만 1년!! 첫돌이 되는 날이었어요. 우리 어르신들과 떡도 해서 나누어 먹고 직원들의 작은 발표회도 보며 모두의 축하 속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주자 현황 (11월말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계	입주자	퇴소자	
	10명	22명	32명	12명	4명	
직원 현황 (11월말 현재)	생활복지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계
	1	1	4	1	1	8

※원장, 사무국장, 간호사는 겸임.



## 안나의 기도

〈눅 2〉36-38)

김영규 목사 (성덕중앙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나가 누굴까요? 가정형편이나 인척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단지 몇 가지 사실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입니다. 결혼 한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84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 만일

20세쯤에 결혼했다면 100세가 훨씬 넘는 분입니다. 오래 사셨으니 장수의 복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오래만 산다고 행복은 아닙니다. 오래 살아도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은 장수 하나 마나입니다. 안나는 아주 행복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어떻게 노후를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첫째로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교회 중심 생활, 신앙 중심 생활입니다. 성도들과 사귀고 세상 친구를 멀리 합니다. 기도로 교제하고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배로 일과를 삼았습니다.

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경로당에서 여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경로당 생활은 별로 보람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께서 모처럼 경로당에 가셨다가 빠져서 집에 오셨습니다. 할머니들이 서로 자랑하는데, 옷 자랑, 용돈자랑, 보약 자랑, 자식 자랑.. 이런 자랑 듣다가 기분이 잡혔습니다. 술이나, 담배, 화투로 소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76세인데 지금도 여기 저기 일하러 다니십니다. 부추밭에 가서 일하시고, 장미집에 가서 일하십니다. 푼푼이 번 돈으로 손자 생일 되면 꼭 금일봉을 전해 주십니다. 저도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까지 일하는게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생을 신앙중심, 교회중심, 예배 중심으로 보내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안나처럼 성전에서 여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만족을 얻으세요. 성도들과 사귀면서 기쁨을 나누세요. 그것이 세상에서 천 날을 사는 것 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둘째로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소원 삼고 사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랐다는 말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랐다는 말입니다. 안나의 평생소원은 자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에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려고 해도 못 본 주님을 안나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큰 소원이 됩니까? 청춘 회복입니까? 인생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순리대로 살아야지요. 연세에 맞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만나기를 바라고 기대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도 결국은 헤어집니다. 남편도 세월 지나면 헤어집니다. 자식들도 장성하면 곁에서 떠나버립니다. 친구도 떠나고, 친척도 떠납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 만나기를 힘쓰세요.

제어머니는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어려서 외조모가 돌아가시고, 힘들게 성장하셨습니다. 19세에 일찍 결혼하셨는데 결혼 생활 1년도 안 되어 6.25전쟁이 나는 바람에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저는 유복자입니다. 어머니가 피난길에 창고에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창고 쟁이”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보따리 행상을 하시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셨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까지도 아들 하나 공부 시키려는 생각에 장정들도 들지 못하는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다니셨습니다.

그런 보람으로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이제는 한 시름 놓겠다 싶었는데 아들이 그만 폐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저는 병들고 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제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시기에 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머니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예수 믿으신 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짐을 벗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는 아들 만나는 즐거움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사시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면서 저는 아내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자식들은 자라면 곁에서 떠날 테니까 너무 마음 주지 말아요. 대신 나와 친하게 지냈시다!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도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있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수님만 바라고 사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 꿈을 꾸게 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잠에서 깨어 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은 천국구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영혼만 천국에 갔다 왔는지 혹은 몸과 영혼이 함께 천국에 갔다 왔는지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본 천국은 너무나 황홀해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튼지 바울은 천국을 본 경험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힘든 일들이 있어도 다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욕을 먹어도, 감옥에 갇혀도 천국 생각만 하면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노인은 꿈을 꿀 것이라고 했습니다.(율2:28-32) 노인이 꿈을 꾸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노인이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바로 천국의 꿈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는 꿈입니다.

안나처럼 예수님 만나는 꿈을 꾸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 정성껏 방문해 주신 모든

## ● 한나요양원



9/15 경기도립의료원 무료이동 검진 팀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언제든 어디든 달려가시는 무료이동 검진 팀. 지구는 독수리 오형제가, 어르신들의 건강은 무료이동 검진팀이!



9/17 성덕중앙교회 여호수아 남 전도회

바쁜 주일 시간 내어 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9/22 대상(주) 전분당 연구소

이게 메주콩 이라고? 누굴 놀려? 메주콩이 아니라 매직 콩인데ㅜㅜ



9/30 삼성전기

행여 넘어질까~ 어르신들을 위해 꼼꼼히 작업 해주셨어요. 삼성전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11/18 경희대 행정대학원

전문지식에 현장경험까지 우리나라 복지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11/25 유니크 펠 닥터스

그린 닥터스에서 유니크 펠 닥터스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어르신을 위한 마음만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 9월 ~ 2006년 11월

## ● 한나그린힐

**'방문자-국민은행 봉사활동 (9/30)**  
지난 9월 이천 지점 국민은행에서 한나그린힐을 방문해 여러 가지 봉사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과장님 및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천 참된교회 (11.16)**  
참된교회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오셔서 사랑의 후원물품도 전달해 주시고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서울교회 한나 여전도회 (10/3)**  
서울교회 여전도회 권사님들 20여 분이 방문해 주셨어요, 후원 물품과 함께 정성껏 준비해 오신 선물도 받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나" 이름이 저희와 같아서 더욱 반가웠답니다.^\*^



**이발·미용봉사 (11.20)**  
매월마다 서울에서 오셔서 미용봉사를 해주십니다. 정성껏 해 주시는 머리손질에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이 환해지신답니다.^



**여주대 사회복지학과 (9/9)**  
여주대 사회복지학과 자원봉사동아리인 "파랑새" 학생들이 20여명이 봉사를 왔어요, 어르신들을 위해 수고하는 새내기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이 참 이쁘지요~~~?

## 인생의 명언

1. 젊음을 부러워하지 말라  
(마음의 질투는 몸까지 병들게 한다)
2. 움켜쥐고 있지 말라  
(너무 인색한 중년은 외로울 뿐이다.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하라)
3. 항상 밝은 생각을 가져라  
(중년기의 불안과 초조는 건강을 위협한다)
4.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  
(의존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5. 감정에 솔직 하라.  
(특별한척, 잘난 척, 부유한척하는 삼척동자는 왕따를 당한다)
6. 신앙을 가져라  
(신앙생활은 인생의 석양을 한결 우아하게 만든다)
7. 아무 일이나 참견하지 말라.  
(이제는 참견보다는 후원과 격려에 치중하라)
8. 자신에 대한 연민 에서 벗어나라  
(“나만큼 고생한 사람, 나만큼 외로운 사람, 나만큼 못난 사람”  
등의 표현을 삼가라. 이런 말은 자신의 나약함을 노출하는 행위이다.)
9. 인생의 계획을 세워라.  
(이제는 인생을 관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0. 체념할 것은 빨리 체념하라.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라)





# 풍성한 추수에 감사하며 함께한 경로잔치

생활복지사 김영현

매년 추수감사절을 즈음하여 우리 시설에서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경로잔치를 열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지1리와 부필1·2리, 장평1·2리 어르신들과 노인일자리 사업팀, 대월면 노인회 임원들을 초청하여 한나그린힐에서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1부 개회예배는 충일교회 목사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시고, 특별히 헵시바 중창단이 함께 오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 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초지1리 노인회장을 비롯한 5명에게 감사장 증정식이 있었고, 이어서 대월면 면장님을 비롯한 여러 귀빈들께서 격려와 축사로 잔치의 기분을 돋우어 주셨습니다. 또한 관천교회 경명임 집사님의 웃음치료 특강은 모든 어르신들에게 웃음보따리를 선물로 나눠주시는 것처럼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성껏 차려진 떡과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시고 3부 친교시간은 한나그린힐 생활복지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생활체조 프로그램 시간에 익히신 새천년 건강체조를 빨간 티셔츠를 입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대월면 자치센터에서 댄스 동아리로 스포츠댄스를 익히신 분들이 의상을 맞춰 입고 멋진 댄스를 보여주셨고, 그린힐 직원들과 한나원 직원들이 각각 팀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준 율동은 신선하고 다채로워 잔치의 재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흥겨움의 열기 속에 동네 어르신들도 자유롭게 나오셔서 장기자랑도 보여주시며 함께 어울려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상(주)에서 후원해 기념품 제작과 잔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셨고, 직원들도 함께 참석해서 자원봉사까지 해주어서 더욱 뜻깊고 즐거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과 참석한 모든 분들의 사랑의 마음이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잔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잔치 때의 환한 웃음처럼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기쁨과 소망이 깃든 새해를 기대해 봅니다



# 사랑과 나눔

(2006년 9월 ~ 2006년 11월)

♥ 따뜻하고 아름다운

## 【후원금】

- 개인 -

경기도지사 · 정진숙 · 김근식(3회) · 이인식 · 정영록 · 경명임 · 유기태 · 박양조(3회) · 정하국(3회) · 한동숙(3회) · 오은숙(3회) · 정해영(2회) · 김영애 · 하순단 · 차상혁(3회) · 차관영(3회) · 김광태 · 김은하(3회) · 김정숙(2회) · 손희라(3회) · 신연옥(3회) · 신학철(2회) · 김갑순(3회) · 이옥화(3회) · 이한섭(3회) · 정신화 · 박동기 · 임희환(3회) · 흥인표(3회) · 이은옥(3회) · 김영현(3회) · 전주인(2회) · 황인철 · 김덕수 · 김주윤 · 윤혜정(3회) · 김영자(3회) · 안태자(2회) · 김상태 · 임복빈 · 조미자(3회) · 김창운 · 박창욱 · 탁광운(2회) · 노동완 · 전기순 · 변송학 · 이영주(2회) · 이선재(2회) · 최창선 · 황윤성

- 단체 -

동막교회(3회) · 신흥목재 · 성덕중앙교회 · 평북노회사회부 · 이천한나원교회 · 평강교회(2회) · 신흥교회 · 울산엘림선교회 · 바울선교회 · 삼성전기(2회) · (주)월간목회 · 이천중앙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6회) · 사)한노협(3회) · (주)브이텍(3회) · 평강교회(주)씨뿌리는사람들(3회) · 경기모금회 · 노인일자리 · 과천교회(3회) · (주)한국필름(3회) · 이마트 이천점 · 신성복교회 · 경노협 · (주)대상 · 토야수지침

## 【지로후원】

한국내과(3회) · 세린교회(2회) · 이천정육점 · 한결교회 · 안양대학교총장(2회) · 이규원(3회) · 두산테크팩BG 이천공장 · 이학우 · 길석환 · 박병숙(2회) · 맹충열 · 김유항 · 김병혁 · 이천관광 · 방정섭 · 양인평 · 보성여고 교목실 · 성상현

## 【후원물품】

경기도립의료원 무료이동진료팀 · 장호원고 · 김경한 · 일진산업 · 강인숙 · 이천신흥수지회(2회) · 울면농협 · 하이닉스(3회) · 정진숙 · 성덕중앙교회 여호수아 남전도회 · 대상(주) 전분당연구소(2회) · 이천옥 · 김광수 · 영천상회(3회) · 영광교회글로리아찬양단 · 김명순 · 김영재 · 이천시장 · 범죄예방이천지구협의회 · LG전자 김쌍수 부회장 · 대월면장 · 김상태 · 장호원상회 · 배자원 · 고남용 · 오일영 · 이복순 · 한정현(2회) · 서울대광초



# 정성과 보람

##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

교 · 김주윤(3회) · 신성복교회 제1여전도회 · BBQ치킨 창전지점 · 야쿠르트 여주대리점 · 박상호 · 김광태 · 신흥교회 바울선교회 · 오천교회 · 송건국 · 신연옥(2회) · 전주인(2회) · 소망치과 · 엄순이 · JKY.Inc · 박종건 · SBS,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경희대 행정대학원 케어복지학과 · 과천교회 · 민재식 · 농수산물유통공사 · 김동기 · 장안카센타 · 청송유통 · 유니크 펠닥터스 · 협동상회 · 무명

### 【자원봉사】

관고동 부녀회(목욕봉사. 3회) · 미미사진관(영정 및 증명사진촬영) · 이옥진 · 하이닉스반도체(3회) · 대월중(2회) · 이천교(6회) · 효양고(2회) · 장호원고(4회) · 효양중(5회) · 도립의료원이동진료(치과진료.7회) · 중앙교회(목욕봉사.3회) · 한정현 · 이옥진 · 남현순 · 이득귀 · 남현슬 · 여주대(3회) · 김진남 · 안흥초교(1회) · 김현수(세명대학교. 2회) · 조승우헤어 · 호산나교회(목욕봉사.2회) · 한국 청소년 봉사마을 · (주)대상 전분당 연구팀(2회) · 중앙보육교사 교육원 · 영광교회 글로리아 찬양단(2회) · 호스피스팀(목욕봉사. 2회) · 삼성전기(5회) · 국민은행 이천지점 · 나지연 · 송정초교 자모회 · 설봉중(1회) · 이천시 자원봉사센터(목욕봉사) · 유니크 펠 닥터스(의료봉사) · 녹색가게(목욕봉사.3회) · 대월농협 주부대학(김장봉사) ·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바르기 살기 협의회(김장봉사)

### 짧은 NEWS

- 수고하셨습니다! – 전인숙(9/30), 최명선 생활지도원(10/30)
- 환영합니다! – 김은수, 윤영옥 생활지도원(11/1)
- 직원교육 –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조리원 교육(9/28 ~ 29) – 지선화, 이용녀  
자원봉사자인증교육(10/28) – 안태자 생활지도원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직무교육(11/8 ~ 9) – 김영현  
생활지도원 연수(11/15 ~ 16) – 김솔람미, 김은수 생활지도원  
친절교육(11/24) – 한동숙, 안태자, 김영현, 조미자, 박은영

## 사랑으로 담은 김장

바르게살기 운동 이천시협의회  
부회장 이분순



매년 이맘때면 각 단체에서 겨울나기 ‘김장 봉사’ 일손 돕기에 분주한 시기이다. 우리 또한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한나요양원 김장봉사!’

한나원과의 인연은 2001년 바르게살기운동 여성위원회가 발족 되면서 시작 되었다. 그해 겨울 실장님께서 “한나요양원 김장봉사를 할 수 있겠어요?”라는 질문에 우리 회원만 믿고 시작했다.

올해 11월 마지막 날 한나원에 도착한 순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작은 산만큼 쌓여 있는 배추를 보고 아~! 저 많은 배추를 언제 씻어 물기 빼고 속을 버무려서 넣나.... 다들 말은 안해도 모두의 얼굴에서 놀란 표정을 느꼈다. 하지만 우리는 즐거운 맘으로 1,000포기 분량의 김장 속 넣기를 잘 마무리했다. 힘은 들었지만 한나원 원장님과 직원분들 모두 나오셔서 “수고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에 우리들은 두 배의 보람과 가슴 뭉클함을 느꼈고 앞으로도 한나원 김장은 저희팀이 꼭 해드려야 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몸과 맘으로 봉사 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비록 내일은 어깨, 허리가 빠근 거리며 아플지라도 한동안 기분 좋게 즐거움으로 지내리라 믿는다. 되돌아보면 남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행복이고 “행복을 혼자서 차지하기 보다는 작은 행복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갖는 것이 훨씬 더 기쁜 행복이다”라고 봉사의 즐거움을 알려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김장을 마무리하고 나니 함박눈이 펄 펄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마음을 더욱더 환하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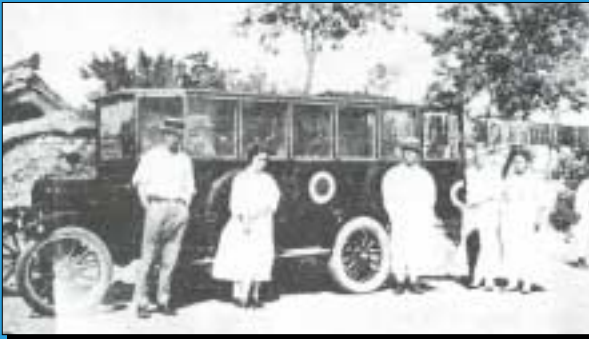
“어르신들, 김치 꺼내 드실 때 우리를 생각하며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한나원직원, 자원봉사센터직원, 바르게살기회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 기획전

# 사랑의 실천, 사회봉사의 향기

한국 기독교사회복지 역사 자료



기간 : 2006년 10월 16일-12월 30일

장소 :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전시실



THE KOREA CHURCH HISTORY MUSEUM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1리 474-2  
Tel : 031-632-1391, 1392(Fax)  
www.kchmuseum.org

## ♥ 후원을 안내합니다 ♥

후원물품 : 생활용품 및 음식물

후원금 : 농협 233071-55-000078(이천한나원)

국민은행 230-24-0087-828(한영제)

지로번호 7612035

방문감사예배 : (설교), 기도, 특송, 봉사

기술봉사 : 목욕, 치료, 원예, 이·미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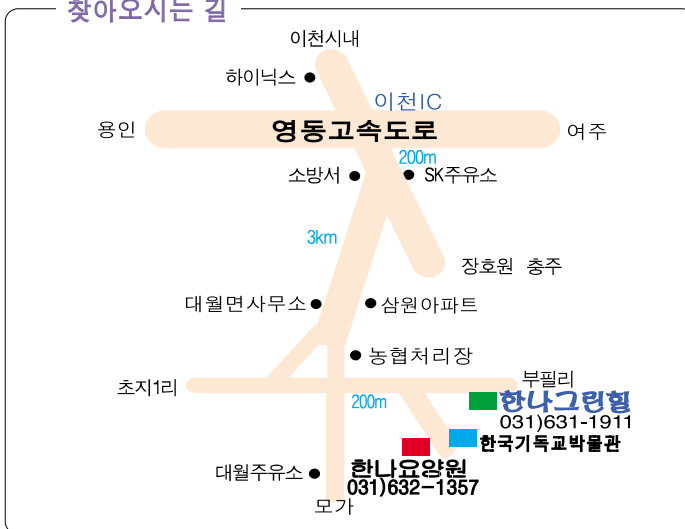
노력봉사 : 기관단체, 학생, 가족, 개인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설에 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즐거운 성탄과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한나원, 그린힐 가족 일동 드림 -

###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 : 이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초지리행 버스 탑승.  
매 시각 정시, 30분에 운행(소요시간 약 30분)